하나님의 굿나잇 키스 받고 잠들기

(살전4:13~18)

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굿나잇 키스 받고 잠들기'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굿나잇 키스 받고 잠들기'
하나님의 굿나잇 키스 받고 잠들기가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죽는 죽음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굿나잇 키스 받고 잠들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의 죽음이 바로 그렇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거다.
근데, 그냥 잠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외국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영화도 요즘은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방에 아이들의 침대가 있고, 그저 개구지게 철모르고 세상모르고 하루 종일 뛰어 다니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불을 덮어 주면서, 아이구~ 우리 아들 아무개 우리 딸 아무개 하면서 이마에 뽀뽀해 주고 뺨에 뽀뽀해 주면서, 잘 자라~.
이게 바로 굿나잇 키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이마와 얼굴에 뽀뽀해 주시면서, 우리 아가 잘 자라~! 해 주시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죽음이 복 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 중에 킹 복, 복 중에 복, 왕 되는 복,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굿나잇 키스 받고 잠드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거라고 얘기 하지요.
자!,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과 예수님 밖에서 죽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은 좀 분명하게 해두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은, 진짜 어린아이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로 온종일 뛰어다니다보면 나름 얼마나 피곤합니까?
엄마 아빠가 씻어주고 이불 덮어줘 갖고, 잘 자라고 키스해 줘서 잠에 폭~ 드는 겁니다.
그게 뭐가 싫을 것이 있겠습니까, anytime 환영이지요, 죽음이 그런 거라면.
잠 한 번 실컷 자봤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정말 깨끗한 잠.
그게 잠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굿나잇 키스해 줘 가지고.

자!, 그 차이가 뭐냐?
여러분, 죽는다는 건 어쨌든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명이라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인격적인 생명 마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우리가 목숨이라고 말하고, 마음의 생명은 마음의 목숨인데, 우리가 어느 때 마음이 질식할 것 같습니까?
육체는 멀쩡하게 살아 있고, 육체의 콧구멍으로 숨을 잘 쉬고 있어도, 그래도 마음이 질식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이 목 졸림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뭡니까?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활동해야지.

그렇게 나를 움직이게 해 주는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뭐에요? 살아 있게 하는 힘입니다.
사전적으로 말해서, 살아 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생명은 뭐냐 하면, 내가 조거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조거만 이루면 만족할 수 있어, 한숨 돌릴 수 있어, 요런 것들이 마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금년에 이제 고3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 아이가 SKY대학만 들어가면, 내 인생은 진짜 숨 돌릴 수 있을 것이야, 그 3년 동안 아들과 함께 딸과 함께 뛰면서, 어떡하든지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살아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힘 아닙니까? 아들의 SKY대학 진학.

그래서 자살의 현상을 보면 재미있어요.
왜 자기 몸을 죽이는 겁니까? 마음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바쳐서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부도처리가 되고 그 빚을 갚을 길도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사업체가 없어진 이 마당에는, 그 아저씨한테는 살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명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에게 생명이 뭐냐?
바로, 나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고, 의욕적으로 뭔가를 바라게 하고 하는 그 이유,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활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것.
근데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교회 형편이 반영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박해가 심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희망과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이런 의욕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근데 종말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동료들을 보는데, 그 이웃교인들의 죽음이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기까지 하고.
도대체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마 데살로니가교회에서의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이런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는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아니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만 잘못 믿고 살다 죽은 사람의 죽음이 어떻

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분해 보는데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목숨이 끊어져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목숨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마음의 목숨까지도 끊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서, 아! 요걸 이루면 기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대상이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잘되면 내가 잘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 생명이에요, 자식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잘되고 못됨에 따라서, 내 기쁨과 만족이 확확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내 생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게 있지요.
또 예술가들은 음악 작곡을 한다, 그러면 그 작곡이 내 생명이요 살아야 될 이유였습니다, 마음에서.
작곡이 잘되면 마음이 기쁘고, 안 되면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게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육체가 죽으면서 마음의 생명과도 끊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될 때, 이들이 다 부활을 하고 나면 이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자였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는 이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니까.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니까,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인격이 그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격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과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뭐냐 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자들이 모인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지옥 상상하기, 한 번 해보시지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요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그것이 다 없어지고,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 주어지는 경우에, 정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 경우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지옥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될 이유가 다, 마음이 육체에 매여서, 육체가 만나는 것만을 내 마음의 만족거리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이 땅 위에만 있기 때문에, 나를 살게 하는 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모두 땅에만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육체가 죽고 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생명이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예수 안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고, 그 밑에 공중이 있고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거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세 차원이 지금도 나에게 겹쳐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이 육체의 이 세상을 빠져 나가는 구멍이 돼버립니다.
뭐가? 십자가가, 그게 문이 돼버립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마음의 차원, 어둠의 세계에 주님께서 하늘까지 닿도록 구멍을 내십니다, 터널을 뚫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다른 모든 곳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는 과정 중에 뚫어 놓은, 그 과정 그 터널 안만큼은 하늘의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죽음이라고 고백하면서 연합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십자가 너머의 그 빛의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들어갈 때, 마음이 십자가 너머로 갔다는 것은,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죽음이니까, 세상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십자가 너머에 마음이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이 만지듯이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건 물론 시간이 걸려요, 매일매일 달라져요, 조금씩 조금씩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더 확정되어지고, 깊어지고, 늘어지고,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느껴지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점점 하나님과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현실감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될 때, 드디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육체로 움직이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어지는 육체가 움직여야 될 모든 이유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뭘 해도 자식을 키워도, 사업을 해도…
이전에는, 십자가 너머로 가기 전에 주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업할 때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움직이는 모든 나의 행동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행동입니다.
근데 마음이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십자가 너머의 빛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는, 사업장에 가서 이상하게 내 마음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내 마음의 만족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찾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기를 때도 이전에는, 그냥 SKY 대학 보내고 좋은 며느릿감 좋은 사윗감 얻어서 결혼시키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최고이고 그게 내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십자가 너머의 그 빛의 터널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식 앞에 있는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자식에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집에서, 하루 종일 엄마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밤에 이제 피곤하면은 엄마가 씻겨서 잠자리에 뉘여 가지고 이불 덮어주고 자장가 불러주면서 재우잖아요?
그래서 굿나잇 키스를 하고 깊은 잠에 들게 해주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아빠, 하늘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찾다가, 주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 보면서 주님, 주님 찾다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리와, 이리와 자! 씻자, 그리고 잠자리에 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가 잘 자라~ 잘 자, 네가 깨어날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있을 거야, 내일 아침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있을 거거든? 온~세상이,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다 없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네가 그렇게 찾던 예수님, 사업장에서도 예수님 찾고, 자식 기를 때도 예수님 찾고,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예수님 찾고, 부도가 났을 때도 예수님 찾고 했던, 그렇게 예수님 예수님 하던 그 예수님이, 눈이 휘둥그레지게 휘황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네 앞에 나타나서 너를 껴안아 줄 거야 잘 자~ 하고, 굿나잇 키스하는 거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마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육체가 죽어도 마음으로 찾고, 마음에서 기쁨의 근원이 되고 만족의 이유가 돼서 이 땅에서 살게 했던, 그 이유가 되는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육체로 만나는 것을 생명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로 만날 수 있는 것을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와는 상관없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만족과 기쁨의 이유로 삼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행동의 모든 활동의 원인으로

이유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마음이 계속 그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거지 이게 뭡니까?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었으니까, 육체가 죽으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활해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곳으로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생활화 하면서 산 사람들은, 마음이 십자가 너머로 가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주님이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육체가 죽은 것은, 인격이 입고 있던 지금 내가 옷을 벗듯이 옷을 벗는 것뿐이지, 죽는 게 죽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게 진짜 죽는 거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붙잡지 않고, 생활화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니까,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이고, 십자가 붙잡고 생활화 하면서 마음이 너머에 있어서, 생명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었던 사람들은, 죽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굿나잇 키스 받고 아주 편안한 곳으로 잠드는 거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어느 때라도 좋아요, 이렇게 굿나잇 키스하면서 하나님이 잠자게 하는 사람.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린 자식을 나두고 죽는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시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굿나잇 키스를 받고, 잠에 들어갈 정도로 내가 평생을 아빠, 아빠하고 살았어요, 자식, 자식도 못했어요, 아빠 아빠 하느라고, 하늘 아빠 아빠 하느라고.
그런 사람의 자식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키우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잠드세요, 아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깊~은 잠자고 일어나면, 너~무 개운하잖아요? 그런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잠자는 거예요, 죽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왜 머뭇거립니까?
아! 머뭇거린다고 우리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죽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굿나잇 키스해 주시면서 잠들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왜 잊어버리고 사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재림하게 되면, 잘~자고 일어나서 예수님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히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할 일은 전혀 딴 데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루를 살면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계~속 돈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장담하고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돈 생각한다고 돈 벌리지 않아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반드시 요 돈이 생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고 확신대로 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어리석은 자는 개가 토한 것을 자기가 도로 먹는 것처럼 한다(잠언26:11)고 했어요.
10년 20년 살아봐서 안 됐으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돈 생각하는 거.
돈 생각한다고 부자 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또 다시 토해낸 걸 다시 집어 먹어요,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하는 겁니다.
왜 돈 생각합니까? 돈도 벌 줄도 모르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애가 엄마 엄마, 엄마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어린애처럼,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엄마 엄마하고 쫓아다니듯이, 어딜 가든지 아빠 아빠하면서 쫓아다니면 돼요.
그러다가, 한 마디씩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 번 하고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돈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자식이 제 길로 가고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백 날 생각하고 노력한 것보다 백 날 하나님 찾다가 한 순간 손대는 것이, 이 세상일은 훨씬 더 쉽게 풀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그러면 반드시 돈이 많이 벌립니다, 이렇게는 얘기 못해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치워지는 거지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망한다는 말이 안 맞지요. 사업을 치우시는 겁니다,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순간도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골로새에서 사도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씀을 오래 듣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통화가 된다든지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의 마음속을 이 세상이 꽉 채우고 있어요.

돈이 채우고 있고, 사업이 채우고 있고, 어떻게 돈을 더 벌 것인가, 어떻게 돈을 더 굴릴 것인가, 그 속에 꽉 채워 있어요, 그게.
분명히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이 이 땅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더 불릴 것인가, 돈을 어떻게 더 벌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중에, 심장마비로 죽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예수 안에서 죽은 겁니까? 마음이 이 세상에서 돈 돈하다가 죽었는데, 예수 밖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 밖으로 튕겨져 나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돈 생각하느라고 튕겨져 나와 버렸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한 순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야지요.
계속 돌아감이 반복되는 거겠지요?
근데, 장기간 완전히 돈에 빠져버렸어요, 예수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그렇게 튕겨져 나와서 돈 돈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돈에 찡겨버렸습니다, 이러다 죽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죽는 게 불행이 아닙니다.
마음이 예수 밖으로 튕겨져 나온 게 불행인 거지.
그럼 이 사람, 예수 밖으로 튕겨져 나왔는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 성도의 견인이 가능한 거지요, 끝까지 지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갖는 길이 뭐에요?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잊지 않고.
그리고 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요것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십자가 보면서,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빠, 아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리와 이제 자자, 응? 자자.
그래서 누이시고 이불 덮어주시고, 이마와 뺨에 잘 자라~하고 굿나잇 키스 해주시면, 그 하나

님 키스 받자마자 딱 잠이 드는 거, 이게 죽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 잠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순간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 이루었어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오늘 하루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아버지가 나를 재워주실 하나님의 굿나잇 키스가, 내 뺨과 이마에 주어지면서 잠들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잠자면 되는 거고, 그 전까지 아빠, 아빠 하면서 살면 되는 거니까.
사업이 되거나 말거나 아버지 뜻,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뜻 안에 있을 겁니다.
시쳇말로 대박 아닙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너머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 아빠하며 쫓아다니다가, 아빠가 끼어 안으시고 잠자리에 누이셔서 굿나잇 키스해 주실 때 주님 오실 때까지, 편안~한 잠에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